

지식의 달과 지식의 별들의 광채

밥다다는 사랑스럽고 온 좋은 모든 자녀들을 보며 행복하다. 밥다다는 각자의 이마 위에서 빛나는 행운의 별을 보고 있다. 육신 세계의 영혼들은 하늘을 보고, 하늘 너머에 거하는 아버지는 지구의 별들을 보기 위해 육신 세계로 왔다. 달과 함께 빛나는 별들의 광채가 매우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달(月)인 브라마도 별들인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장식된다.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가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의 사랑이 더 크가? 자녀들은 노느라 바쁠 때 자기 어머니를 잊는 반면에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을 생각하게 한다. 만일 이 사랑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특별히 암릿벨라 시간에 그 때를 위해 마두반에 모였던 영혼들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보다 어머니 브라마를 더 깊이 기억하고 있었다. 서틀리전에서도 태양인 아버지는 은밀했고, 손위의 어머니이며 달인 브라마가 브라민 자녀들인 별들과의 만남을 축하하는 사랑에 넋을 잃고 있었다. 오늘 서틀리전의 장면은 무엇이었는가? 어머니와 자녀들의 마음과 마음의 대화는 항상 계속되지만 오늘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대화였다. 너희들은 그들의 대화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아느냐?

오늘 암릿벨라에 브라마는 특히 브라민들에 대한 사랑에 넋을 잃었다. 마두반은 사카르 브라마가 행한 카르마(행위)와 봉사의 땅이다. 그것은 또한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두 형태와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브라마 바바가 그의 몸과 마음을 통해 장식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곳의 광채를 보며, 어머니 브라마는 특히 육신의 형태 안에서의 그의 육신의 형태를 기억하며 물었다: 별들이 달과 같은 형태를 갖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겠는가? 즉, 육신의 형태와 아비약트 형태의 만남은 언제 일어나겠는가? 바바가 어떤 대답을 받았겠는가?

아버지가 대답했다: “모든 이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어머니가 말할 때다.” 그래서 어머니 브라마가 순회를 했다. 온 사방을 순회하는 동안 바바는 계속 모든 브라민들의 영성을 지켜보았다. 이 순회 후에 그들은 계속 서틀리전에서 대화를 계속했고, 브라마 바바가 말했다: “나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표를 간직하는데 일등이고, 그들은 모두 때가 되면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물었다: 왕국이 준비되었느냐? 오늘 브라마는 브라민 자녀들의 편을 들고 있었다. 브라마가 말했다: “16,108 염주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질문을 받았다: 브라민들이 몇 명이 있느냐? 50,000에서 16,108이 못 나오느냐? 염주는 준비되었지만 지금 그들은 등수대로 염주에 꿰이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 구슬들은 정해져 있지만 그들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들의 위치에 있어서는, 마지막 구슬이 빨리 갈 수 있다. 오늘 브라마는 16,108 구슬들, 즉 모든 협조적인 영혼들의 행운의 선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마는 행운의 공여자, 모든 행운을 나눠주는 자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의 기념물로서 브라민 사제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의 운세를 준비하고 명명식을 집전한다. 어머니 브라마는 16,108 구슬들의 행운의 확실성에 관해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거기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느냐?

오늘 브라마는 이 나라와 외국의 자녀들에 대한 칭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초창기에 온 자녀들의 행운에 대한 칭송이 있는 것처럼 또한 아비약트 형태를 통해 부양을 받아온 새로운 자녀들의 행운에 대한 칭송도 그만큼 많다. 초창기에 그들은 앞에 있는 누군가의 실질적인 삶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본보기였다. 그들의 행운은 전혀 명확하지 않았다. 그것은 완전히 미지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은 자신을 바쳐 불꽃에 완전히 뛰어든 나방들이었다. 것처럼, 새로운 자녀들은 많은 다른 이들의 삶의 본보기를 갖고 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매우 명확하다. 84생의 운세가 매우 명확하다. 노력과 보상이 둘 다 명확하지만 아버지는 아비약트다. 그들은 아비약트 형태로 아버지에게서 부양을 받으면서 육신의 형태를 경험한다. 아비약트 형태를 육신의 형태로 경험하고 그의 가까움과 동반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자녀들의 경이로움이다. 초창기에 자녀들의 경이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마지막에 와서 빨리 가고 있는 자녀들의 경이로움도 있다. 바바는 이 경이로움의 칭송을 노래했다. 너희들은 오늘의 대화를 들었느냐? 참으로 많은 불평의 염주들이 있었다. 이 불평의 염주들은 브라마를 사랑의 화신으로 만들고 있었다. 바바는 앞에서 너희들에게 오늘 브라마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의 이미지이면서 또한 드라마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바바는 사랑을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양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너희들은 주인공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는 법과 나오게 만드는 법을 안다. 너희들은 너희가 원할 때 어떤 형태라도 취할 수 있다. 즉,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 앗차.

끊임없이 사랑이 넘치고 모든 힘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지극히 초연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들에게, 행운의 별이 끊임없이 빛나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복 있으며 지금도 옥좌에 앉아 있고 미래에도 옥좌에 앉아 있을 자들에게, 자기 자신과 남들을 일초 만에 변화시키는 그런 수 백만장 자들에게, 그런 세계 시혜자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와 다디들의 미팅

오늘 아침 암릿벨라에 브라마 바바가 마친 행운의 선 안에 들어 있는 보석들은 누구이겠느냐? 여덟 보석들이 최종화되었겠느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들을 정했다. 이제 그들은 그저 무대에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 왜 아버지에게 오직 8명만이 정해졌는가? 미래는 아버지에게는 현재만큼이나 명확하다. 아버지에게 가깝고 모든 과업에 그에게 협조하는 아주 특별한 자녀들에게는 미래가 똑같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덟 보석들은 대법원장이다. 재판관의 판결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의 마지막 말이다. 아버지는 대통령이지만, 자녀들은 대법원장이다. 판결은 자녀들이 내린다.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은 언제나 정확하다. 대법원장은 판사가 내린 결정을 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판결에는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미래가 현재처럼 명확해지지 않는 한 어떻게 그들이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대등한 지식을 갖는 것을 아버지와 대등하다고 한다. 너희들은 이 단계를 경험했느냐? 오늘 너희들은 바바를 육신의 형태로 기억했느냐 아니면 아비약트 형태로 기억했느냐? 별들을 보며 달도 또한 기억된다. 따라서 브라마도 오늘 너희들을 기억했다. 앗차.

밥다다와 그룹들의 미팅: 구자라트 그룹

구자라트는 특히 마지막에 와서 빨리 가는 축복을 받았다. 구자라트의 너희 영혼들은 드라마에 따라서 특별한 행운을 얻은 도취감을 갖고 있다. 거리 면에서 구자라트는 마두반에 매우 가깝다. 마찬가지로 드라마에 의해서 너희들은 또한 너희의 노력에 있어서 가까운 축복을 받았다. 너희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처럼 지식의 다르나에 있어서도, 그 땅 역시 다르나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땅이 좋을 때 금방 열매가 열린다. 그러면 노력을 적게 들이고 열매는 더 많다. 구자라트는 땅과 가까움의 면에 있어서 가까움의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을 가진 영혼들이 그들의 노력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겠느냐? 다르나의 과목에서 구자라트 거주자들은 특별한 승강기를 갖고 있다. 극도로 타모프라단한 철시대의 세계에서 구자라트는 아직도 좋다. 그러므로 두 축복의 승강기를 바탕으로, 구자라트에서 온 자들은 첫째로 도달해야 한다. 축복에서 유익을 얻어라. 그러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쉬운 것으로 경험될 것이다. 뭔가가 아주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산을 목화솜(루이)으로 만드는 것이라 한다. 겨자씨(라이)는 그래도 딱딱하지만 목화솜은 부드럽고 가볍다. 너희들은 이것을 경험하느냐? 앗차.

봉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영혼들은 봉사하는 역할을 했다. 남들이 보고서 그들을 일급의 봉사적인 영혼이라 말하는, 봉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영혼들의 특질이 무엇이나? 봉사하는데 있어서도 모두가 등수대로다. 넘버원으로 봉사적인 영혼들의 특질이 무엇이나? 일급으로 봉사적인 영혼들의 가시적인 특질은 그들은 봉사하는 동안 아버지의 미덕과 과업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행동을 통해서만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신체적으로 봉사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모든 행동은 발걸음마다 아버지의 미덕과 과업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일급의 봉사다. 봉사하는 동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지식, 행복, 그리고 평화의 대양 마스터로서 경험해야 한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런 종류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봉사에 지칠 줄 모르기만 하느냐? 일급으로 봉사적인 영혼이란 세 종류의 봉사 - 얼굴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 를 동시에 모두 하는 자를 의미한다. 너희들의 이미지는 영적인 봉사자의 광채를 드러내야 한다. 즉, 천사의 광채가 보여야 한다. 너희들의 고귀한 태도가 너희의 마음을 통해 봉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봉사 모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일급의 봉사자라 한다. 봉사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모든 미덕의 대양 마스터 상태로 있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질이다. 모든 이가 지칠 줄 모르게 될 수 있지만 다른 어디에서도 세 종류의 봉사를 모두 동시에 하는 만능으로 봉사적인 영혼들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목표와 그 자격 요건에 맞는 브라민들의 특질을 드러내라.

너희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겠느냐? 너희들은 더욱 더 내향적이 되어 기억의 순례의 성취에 깊이 들어가 아주 깊은 경험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 주제를 연구해라. 생각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 그 결과를 체크해라. 너희가 한 생각이 실질적인 형태를 취했는가 아닌가? 너희가 혼잡한 힘의 실질적인 결과가 몇 퍼센트였는가? 이제 깊은 경험의 실험실 속에 머물러라. 남들이 너희가 완전히 이 세상을 초월해서 특별한 사랑에 낮을 잃었다고 느껴야 한다. 이제 너희의 카르마와 요가가 더욱 더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라. 카르마를 행하는 동안 강력한 요가의 단계를 갖는 연습을 늘려라. 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집중적인 속도를 가짐을 뜻한다. 너희들은 움직여 나가는 동안 이 균형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인 속도를 갖지 못하고 평범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너희가 봉사를 위한 것들을 발명하듯이 이제 또한 연습할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것을 경험하고 뭔가 새로움을 가져와라. 이에 있어서 모든 이를 위한 본보기가 되어라! 모든 이가 요가가 기억이며, 요가를 한다는 것은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이 연결의 실질적인 형태에 깊이 들어가라: 그 증거가 무엇이며, 너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는가를. 거친 형태가 아니라 그 영성에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천사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계시를 얻는 방법은 제일 먼저 자아 안에서 모든 경험들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외국 땅에서 한 봉사의 어떤 결과에 관해 들었느냐? 무엇이 인상을 남겼느냐? 드리시티와 영성의 힘이다. 언어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남은 인상은 너희의 천사체 얼굴과 눈 속의 영적인 시선이다. 너희들은 이 결과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갖지 못할 것이다. 움직여 나가는 동안 말의 힘도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말과 행동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과업이 영성의 힘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성취될 수 있다. 소리 안으로 들어오는 연습이 된 것처럼 너희들은 또한 영성을 훈련하게 될 것이며 소리 안으로 들어올 욕망을 갖지 않을 것이다.

축 복: 몸 없이 되어, 초연한 관찰자로서 신체기관이 기능하게 하면서, ‘행하는 자’라는 의식에서 자유로워져라.

원할 때 몸 안에 들어오고 원할 때 몸 없이 되어라. 행동을 행해야 할 때는 신체기관을 도움을 받아라. 그러나 그 지원을 받는 것이 “영혼인 나”임을 잊지 말아라. 나는 행하는 자가 아니고 고취시키는 자다. 너희가 남들이 뭔가를 행하게 만들 때 너희 자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초연한 관찰자가 되어 신체기관이 기능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행하는 자’라는 의식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몸 없이 될 것이다. 행동을 행할 때는 1~2분 동안 몸 없이 되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마지막 순간들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슬로건: 세계 황제가 되려면 세계에 사카시를 주는 자가 되어라.

*** 음 샐티 O M S H A N T I ***